

어린이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천¹⁾

강세영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²⁾

다섯 살, 일곱 살 남매 아이들의 엄마인 나는 아이들과 함께 사람들이 빼곡한 전철에 자리 잡고 앉았다. 잠시 후 행색이 매우 남루하고 몇 개월은 씻지 않아 온몸이 검은 40대 가량의 한 남성이 아이들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길이나 시장에서 파는 가게에서 얻은 듯한 플라스틱 접시에 놓인 떡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 앉아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고는 자신의 떡을 아이들과 나에게 나누어주었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그에게는 매우 소중했을 ‘귀한 떡’을 타인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전해져 나 역시 가방에 있던 물을 꺼내어 ‘목마르니 같이 드세요.’라며 건네주었다. 아이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는 ‘엄마 이 떡 먹어도 돼요?’라고 물어보아, ‘그래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라고 답해주었다. 그 남성과 아이들은 떡을 같이 나누어먹었다. 그리고 지하철에 같이 타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나와 그 남성,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교육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한 사람인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 느끼는 마음, 존중, 평등과 같은 가치의 의미를 경험으로서 느끼고 이해하게 해주고 싶었다. 문자로 배운 언어의 의미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겉모습으로, 보이는 부분만으로 인간을 평가하여 차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인간 모두가 존엄한 존재임을 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지식’이라 생각한다.

존 듀이가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배워야할 내용이 대부분 상징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상징으로 표현된 자료는 일상 사고와 표현의 습관과 관련을 맺지 않은 채 그 자체로 별도의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지식이 생활경험의 내용과 유리된, 이른바 ‘학교의 교과’로 그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나는 어린이들의 지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닌, 우리가 접하는 사회 안에서 느끼고 행동하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지식’이기를 바란다. 존 듀이가 ‘가치 판단의 심층표준은 한 개인이 습관적으로 젖어 있는 사태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말하듯 어린이가

1) 본 원고는 2025년 숙명여자대학교 창의융합연구소의 [민주주의의 창의적 실현을 위한 발표] 공모전 우수작으로 선정된 원고임.

2) suinyejun@gmail.com

어른들과 함께 하는 사회 환경 내에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즉각적이고 습관적인 생각에 의해 신념, 가치, 윤리들이 형성된다. 그렇기에 어린이들에게 언어로, 몸가짐으로 보이는 어른들의 즉각적이고 습관적인 행동들은 즉시 어린이들의 가치판단의 표준이 된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평등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다. 그것은 인종, 연령, 성, 종교, 지위, 계급, 빈부 그 어떤 것을 막론한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단순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진짜의 ‘살아있는 지식’을 행동과 실천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존 듀이는 민주적인 사회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삶이 여러 기능으로 따로따로 갈라져 있고 사회가 여러 계층으로 따로따로 갈라져 있는 현실을 정직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소수에게만 문화적 장식품으로서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 실재를 영속시켜 나가는 장본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

이러한 이론적, 정서적 변화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은 참으로 민주적인 사회, 모든 사람이 유용한 봉사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가치있는 여가를 즐기는 그런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을 실제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19:11)

- 존 듀이(John Dewey, 1916/1987), 『민주주의와 교육』 중에서 -

존 듀이는 이론과 지식을 모두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등’, ‘인간 존엄’ 등을 이론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 이론은 ‘장식품으로서의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식’, ‘생산하는 지식’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민중은 중요한 존재이다. 민중들이 살아있는 지식을 몸소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 브라이도티(2022)는 민중은 ‘실천의 결과’이며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민중은 현실화되어야 하고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찾고 있는 잠재적인 것이다. 민중은 실천의 결과이며, 상이한 배치들을 생산하는 집단적 참여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똑 같지도 않지만,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다.

-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2019/2022), 『포스트휴먼 지식』 중에서 -

민중은 현실에서 함께 상호작용하며 현실을 변화시켜 간다.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어른들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신념과 가치를 즉각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 각자의 움직임과 행동,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민주적인 사회는 민중들의

손으로 모두가 함께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사회이다.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 이윽고 한 나라의 숙명(宿命)도 전환하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전 환도 가능케 한다.’

- 이케다 다이사쿠(Daisaku Ikeda, 1965/2014), 『인간혁명1』 머리말 중에서 -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은 나와 접촉해있는 타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윽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살아있는 지식, 생산하는 지식을 위해 우리가 뿌리 내린 이곳에서 각자가 옳은 그것을 향해 나아감이 바로 민주주의의 실천인 것이다.

참고문헌

- Braidotti, R. (2019). *Posthuman knowledge*, 이경아 역 (2022). **포스트휴먼 지식**. 갈무리.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문남미 역 (2007).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 Ikeda, D. (1965). *The human revolution 1*, 이종한 역 (2015). **인간혁명 1**. 화광신문사.